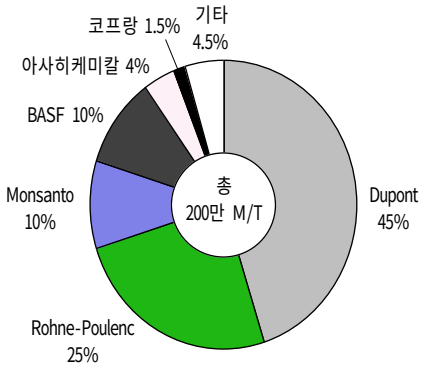
아디픽산, 수급난으로 가격폭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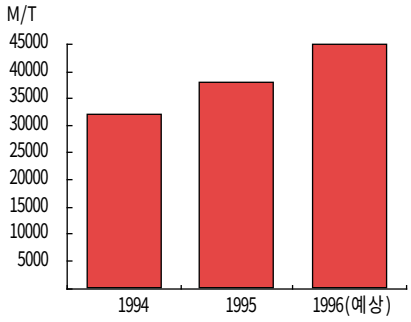
R-P의 한불화학 인수후 이상징후 … PU수지 반발 격화

국내 Adipic Acid 시장은 Rohne-Poulenc의 한불화학 인수 후 공급이 타이트해졌을 뿐만 아니라 3/4분기들어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 수요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96년들어 아디픽산의 주 수요처인 PU시장이 회복세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수요가 15%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인상과 함께 수입비중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5년 국내 아디픽산 수요는 3만8000톤으로 이중 55%인 2만900톤을 한불화학이 공급했으며 나머지 45%를 BASF, Dupont, Ashahi Chemical이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6년 수요는 4만5000톤으로 95년 3만8000톤에 비해 18.4% 신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국내 PU시장이 95년 불황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전환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주 수요처인 나일론 시장이 호황을 보여 수요가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8월말부터 BASF, Ashahi Chemical, R-P 등의 정기보수까지 겹쳐 국내 아디픽산의 공급이 더욱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아디픽산 생산능력 점유현황(1996)



국내 아디픽산 수요 추이



더욱이 일본에 연간 1만톤의 아디픽산을 공급해오던 Monsanto가 96년초 증설중 발생한 공장트러블로 8월 현재까지 공급을 완전히 중단함에 따라 국내 공급선인 BASF가 일본으로 거래선을 전환, 국내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또 한국, 중국, 대만, 일본으로 수출할 예정이던 싱가폴Dupont(연산 12만톤)도 폐수문제로 인해 생산허가를 받지 못해 96년 상반기 생산이 불가능해져, 수급 타이트는 당분간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아디픽산 수요기업들은 국제가격에 비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코프랑에 공급을 의존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물량조달이 어려워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적이다.
코프랑은 중국수출 물량을 월 300톤에서 500 600톤으로 증가시키는 등 다국적기업으로서의 세계시장 경영전략을 추진, 국내시장에서는 물량 및 가격통제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디픽산 국내가격은 96년 3/4분기들어 급상승, 95년말대비 70달러 이상 오른 톤당 1350 136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요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아디픽산 수요는 200만톤으로 나일론용이 160만톤(80%), PU수지 및 페인트 등이 20%를 차지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PU수지용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세계 생산능력을 보면 Dupont 90만톤(45.0%), R-P 50만톤(25.0%), BASF 20만톤(10.0%), Monsanto 20만톤(10.0%), Ashahi Chemical 8만톤(4.0%), 코프랑3만톤(1.5%), 기타 9만톤(4.5%)이다.
코프랑은 8월20일 정기보수기간 중 생산능력을 3만톤에서 3만6000톤으로 20.0% 증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프랑은 재고 1000톤을 확보하기 위해 프랑스 롱프랑으로 부터 월 500 600톤을 공급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PU수지 생산기업들은 경쟁사의 난립으로 95년 원료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극심한 경영적자를 보여오다 96년 3/4분기 이후 또다시 원료가 상승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6/9/9.16>